

전남 서부권

# 완도 청산도 '슬로푸드 체험관' 생긴다

### 10억 들여 폐교 리모델링 연내 개관... 관광객들 직접 전통 음식 조리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군 청산도에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슬로푸드 체험관'이 생긴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슬로푸드 체험관은 10억원을 들여 폐교인 옛

청산중학교 동분교 건물과 관사를 고쳐 올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이다. 청산도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해 차린 청산도 밥상인 로컬푸드를 계승·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관광

객에게 슬로푸드를 제공, 먹는 즐거움과 체험 등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체험관을 조성한다. 군은 체험관이 문을 열면 청산도의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 외부 방문객 맞이 등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중식 완도군은 "청산도를 '느리게 사는 마을'이라는 관광상품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농어촌 관광의 표준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완도군 공무원과 주민들이 지난 15일 보길면 중리 해변에서 태풍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장 시설물 잔해를 해체하고 있다. 완도군은 37억여원(285여가)의 수산 시설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완도군 제공)

## 진도 운림지구에 삼별초 역사테마공원

### 명승지 운림산방 등 연계

### 88억 투입 내년 8월 완공

고려 삼별초군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 발전하기 위한 역사 테마공원이 진도에 조성된다.

진도군은 지난 13일 의신면 사천리 일원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림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진도군은 총 사업비 88억원을 들여 의신면 사천리 일원 12만8600㎡에 테마공원을 내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도시민에게 휴양·레저·체험이 어우러진 전원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농산물 판매 등 농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해 선정됐다.

테마공원은 삼별초 홍보전시관, 농어촌체험장 등으로 구성되며, 인근의 운림예술촌, 국가지정 명승지 운림산방, 남도전통미술관, 쌍계사, 철쭉산 상록수림 등과 연계한 진도제일의 관광휴양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진 진도군수는 "테마공원을 시작으로 삼별초 호국 유적지를 본격적으로 정비해 진도를 '삼별초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별초는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講和)가 성립돼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1270년부터 1273년까지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진지를 옮기며 몽골군과 항쟁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은 지난 13일 의신면 사천리에서 운림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진도군 제공)

적으로 정비해 진도를 '삼별초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별초는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講和)가 성립돼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1270년부터 1273년까지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진지를 옮기며 몽골군과 항쟁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목포 31층 주상복합 명칭

### 트윈스타로 결정

목포 남교지구에 세워지는 31층 주상 복합주택 명칭이 '트윈스타(TWIN STAR)'로 결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실시한 공모에서 응모작 1300편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트윈스타'는 목포를 빛내는 2개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유달산의 내륙방향과 서남해안의 해양 방향 모두를 비추는 목포 발전의 랜드마크가 돼 주길 바라는 목포시민의 마음을 담고 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분양 사무실을 이달 말에 완도심 대성지구내에 준비해 오는 9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트윈스타'는 총 204가구의 31층 주상복합주택으로 지하 4개 층은 주차장, 1~2층 상가, 3~5층 목포시청 일부 기능, 6~31층 아파트로 되어 있는 쌍둥이 건물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호기자 lyc@

## 완도 민·관 손잡고 태풍피해 복구 총력

### 파손 가두리 양식장·해안가 쓰레기 등 처리

제9호 태풍 '미이파'의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완도군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 공무원과 주민들은 지난 15일 공휴일도 잊은 채 피해시설 복구 및 해안가에 밀려든 바다 쓰레기를 처리했다.

특히 전복 가두리양식장 8000여칸 중 6500칸이 파손됐던 보길면 중리마

의 경우 군은 예비비 4억원을 긴급 투입해 대형 굴삭기 5대와 특수인부 24명, 주민 250명을 동원해 현재까지 80%인 5000칸을 해체했다. 나머지는 18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체작업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전복 가두리 시설 500칸과 5만점 중 6500칸이 파손됐던 보길면 중리마

업인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폐기대상 시설물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이 달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피해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확인을 끝마치고 19일까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전산입력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해 선 복구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목포 어린이도서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목포 어린이도서관과 국립 민속박물관은 오는 26일 목포 어린이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한다. '배우는 기쁨, 노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민속 박물관의 이동차량을 활용해 다채로운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내용은 '놀이를 통한 세계여

행'을 테마로 한국의 전래놀이와 주변 국가인 일본·중국을 비롯한 베트남·몽골·터키·미국 등 세계의 여러 나라 어린이놀이 자료와 영상·사진 자료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참여자가 직접 생생하게 보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line@

특히 아이들이 고수·쌍륙·승경도·보드게임 등을 자유롭게 하는 놀이체험과 함께 몽골 옷을 입어보고 플라로이드 사진찍기·몽골의 여러 물건들을 직접 만져보고 설명을 듣는 다문화 체험도 할 수 있다. 국립 민속박물관 관계자는 "놀이를 통해 세계를 여행하며 배우는 기쁨과 노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line@

## 전 북

# 태풍피해 정읍·임실·고창 특별 재난지역 선포될 듯

### 정부 피해규모 조사

지난 8~9일 태풍 '미이파'와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난 전북지역 3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전망이다.

전북도 정현을 행정부지사는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정읍시와 임실군, 고창군 등 3곳이 이번 주에 일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실시단을 이들 3곳에 보내 피해 규모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특별재난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남원시와 부안군에 대해서도 실시단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정 부지사는 덧붙였다. 이날까지 전북지역 피해액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751억 원과 농작

물 837억 원, 기업 220억 원 등 총 196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정읍시 342억 원을 비롯해 ▲임실군 91억 원 ▲고창군 79억 원 ▲남원시 73억 원 ▲부안군 71억 원 등 도내 5개 시·군의 피해는 특별재난 지역 선포 기준(50억~65억 원)을 넘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지원 ▲의연 급급 특별지원 ▲농어업인 영농·영아·시설·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이자의 감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의 혜택이 해당 지역에 주어진다. /연합뉴스



젖은 고추 손질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15일 정읍시 산외면 노은마을에서 수해 때 젖은 고추를 손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완주 도지사 또 '측근 챙기기'

### 산하 기관장 이어 선거캠프 인사 정무부지사 임명 인사 청문회 등 검증시스템 도입 제기 곳곳서 비판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측근 챙기기 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는 16일 김승수(42) 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을 신임 정무부지사로 임명했다. 이날 오전 김완주 지사로부터 사령장을 수여받은 김 정무부지사는 취임식을 생략한 채 수혜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을 벌였다. 정읍 출신인 김 부지사는 이리고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김완주 도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한 뒤 줄곧 김 지사와 함께 해왔다. 김 부지사는 "도청 청원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인사와 관련해 도정 안팎에서 여러 지적이 있지만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겠다"며

"도민들과 공감하는 도정, 언제나 그 접점의 현장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민선 5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 단행한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 전북발전연구원장 등으로 임명했다. 당시 김 지사는 '보은인사·정실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붓물을 이루자마자 긴급히 사퇴했다. "선거에 나갈 일은 없다"며 "능력있는 인물이며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김도 원장과 최모 사무총장이 취임 1년여만에 내년 총선 임박을 이유로 사임한다고 밝히면서 김 지사 발언은 '허언'(虛言)으로 전

락했다. 결국 이들이 총선 출마준비를 이유로 중도하차 하자 '선거출마 위해 스펙쌓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 전문가가보다는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기관장으로 임용함으로써 기업육성, 중소기업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현안을 챙기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인사패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등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등 검증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간부 공무원 A씨는 "측근 인사들을 경제 관련 수장에 앉히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경제 전문가들은 기용되지 못했다"며 "결국 이들은 총선을 위한 징검다리로 직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뉴스 브리핑

### 전주 시립도서관, 책 배달 우편 서비스

전주 시립도서관(관장 안병수)은 17일부터 장애인들을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집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책배달 우편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립 중앙도서관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집에서 편안하게 도서관 책을 무

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용대상은 시각장애인(1~6급)과 중증 청각·지체장애인 1~2급으로, 대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서대출 권수는 1인 5권이며 대출기간은 4주이다. 문의(063-230-1811)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 1주일 연장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1주일 연장된다. 군산시는 당초 선유도 해수욕장의 폐장일을 15일로 계획했지만 최근 잦은 비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서철이 늦춰짐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장 이후 지난 주말 연휴 처음으로 1만여 명이 넘는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았다"면서 "날씨가 맑아지면 이번 주 내내 늦은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 김제보건소·전북 혈액원 '사랑의 헌혈'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와 대한적십자사 전북 혈액원은 오는 22일 시청 종합민원실 앞 차장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한다. 이날 헌혈운동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7시간동안 공무원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 주민, 유관기관 임직원들

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헌혈에 참여하면 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063-540-1315)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 고창 침수농지 벼 병해충 긴급 방제 추진

고창군은 집중호우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긴급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은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에 도열병, 흰잎마름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이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어 피해 농경지

4005ha에 예비비 2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해 방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역농협에 공급된 무인헬기 7대를 모두 동원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윤영민기자 young@

## 군산 무역지역 수출 1억1000만달러

### 올 상반기 전년비 2.3배 늘어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군산 자유무역지역의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이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난 1억1000만달러로 기록됐다.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4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1억1000만 달러로 대폭 늘었다"면서 "2005년 관리원이 개원한 이래 반기별 실적으로는 최고 액수"라고 16일 설명했다. 수출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2~3년 전에 입주했던 ㈜KHE와 ㈜JM중공

업 등 대표기업들의 생산율이 증대되면서 중동과 북미 수출이 크게 신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리원은 "하반기에 ㈜세대에너텍, ㈜시그넷시스템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올해 전체수출액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산시 소동동 군산 2산단내에 자리한 군산 자유무역지역(125만㎡)에는 현재 기계와 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3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